

#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 HUMAN

# in 창조 2025

일자 2025. 9. 16.[화]

장소 한동대학교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IGE)  
김영길 GRACE School

# Global Citizenship Leadership Insight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지속가능발전목표,  
포용과 협력으로 하나된  
인류를 향하다.”

김영길  
UNAI Korea 초대 이사장/회장

“Why Not Change the World?  
영성·인성·지성의 전인적  
세계시민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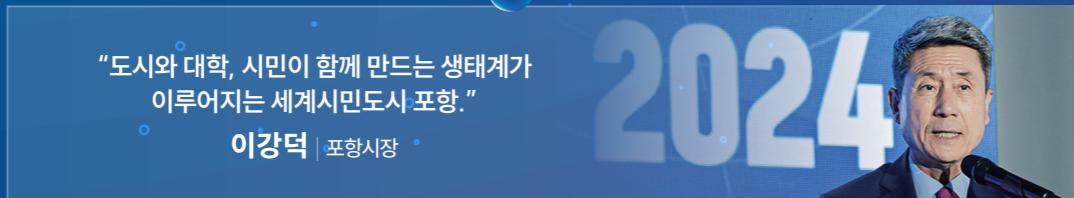
유종근  
UNAI Korea 이사장/회장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과  
진리의 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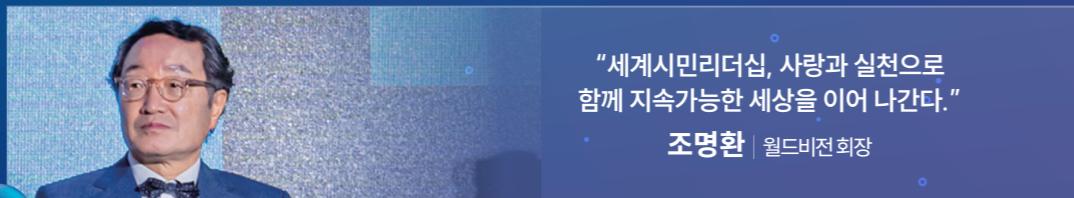
“지혜가 빛을 밝히고,  
사랑이 그 빛을 완성한다.”

김형석 |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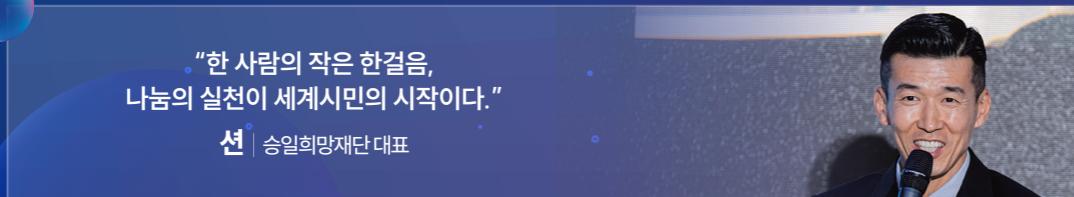
“도시와 대학,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세계시민도시 포항.”

이강덕 | 포항시장



“세계시민리더십, 사랑과 실천으로  
함께 지속가능한 세상을 이어 나간다.”

조명환 | 월드비전 회장



“한 사람의 작은 한걸음,  
나눔의 실천이 세계시민의 시작이다.”

선 | 승일희망재단 대표

#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변화로 시작되는 혁신, 함께 그리는 미래

## 1. 개요

01

## 2. 개회식

03

## 3. World Wisdom Forum

05

변화의 시대를 위한 지혜: 위기에서 기회로

## 4. Global Leader's Dialogue

09

변화를 이끄는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5. 리셉션

11

세계시민의 미식, 포항 음식문화 스토리

## 6. ESG 전인적 세계시민 Talk

13

STARTUP TALK 규제 준수를 넘어: 구조적 회복과 혁신

NGO TALK 지역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글로벌 파트너십: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장기적 실행

## 7. 언론보도

19

## 8. 도움 주신 분들

22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2025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가 9월 16일 한동대학교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과 김영길 GRACE\* 스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변화로 시작되는 혁신, 함께 그리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다양한 세션에는 한동대학교 및 포항시 학생들과 공무원 · 기업인 ·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여 급변하는 시대와 미래에 대해 경청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UN 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UNAI Korea)는 정직, 성실, 책임, 존중의 가치를 갖춘 전인적 세계시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전인적 세계시민워크>는 이러한 가치들을 학내외와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실천적 무브먼트로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연구·교육·실천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킨 이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김영길 전인적 세계시민상의 첫 수상자를 맞이하는 뜻깊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매년 <전인적 세계시민워크>의 가치에 공감하고 저희의 행보에 동참해 주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기조연설과 더불어 World Wisdom Forum 연사로 참여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변화를 이끄는 지방 정부 도시 포항의 청사진을 공유해 주신 이강덕 포항시장님과 Global Leader's Dialogue 패널 여러분, 앞서가는 ESG 리더로 전인적 세계시민 Talk에 참여하여 열정 넘치는 강연을 해 주신 이준철 변호사님과 김승환 대표님, 그리고 미식도시 포항의 음식문화 스토리를 멋지게 구현해 주신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글로벌 경쟁이 난무하는 환경은 오히려 새로운 혁신을 통한 근본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위기(危機)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도 있듯,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혁신과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 모두와 함께하는 미래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전인적 세계시민워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근

UN 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UNAI Korea) 이사장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2025. 9. 16.(화)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2025

총 참가자  
809명

변화로  
시작되는 혁신,  
함께 그리는 미래

기회로  
Change  
Opportunity

Humanistic Global Citizenship Week  
in Creation 2025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2025 전인적 세계시민워크>는 H.U.M.A.N. in 창조로 요약되는 전인적 세계시민의식의 가치를 되새기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글로벌 세계시민 리더들이 가져야 할 창조적인 마인드셋과 실천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이에 뜻을 같이하는 주요 내외빈들이 개회식에 참석했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과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해수면 상승, 해양 생태계 파괴, 생물 다양성 상실, 인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파리기후협약 체결 이후 10년이 지난음에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목표가 이미 흔들리고 있으며, 현재는 1.55도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구는 하나뿐이고 대체할 행성은 없다(There is no planet B)"라는 메시지를 전해 각국과 개인 모두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에너지 혁신과 재생 에너지 확대, 원자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Lead by example(모범적 리더십)"을 실천 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후 위기 대응은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화로 시작되는 혁신, 함께 그리는 미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비전 메시지를 전한 **유종근 UNAI Korea 이사장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파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인간 중심의 지혜와 가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전환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의 기반"이라며, 정직·성실·책임·존중의 덕목을 공동체의 반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건강한 공동체의 중심에는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자리해야 하며, 진정한 지도자는 말이 아닌 삶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정직과 책임을 실천할 때 사회 전체의 신뢰와 회복력이 세워진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진리이자 생명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며, 포함과 대한민국이 열정과 협력으로 창조적 변화를 이루어가길 바란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환경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탐욕과 공동체 의식의 상실,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세계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과 문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시민의식이 전인적 세계시민워크를 통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은** 환경 메시지에서 오늘날 AI가 대학교육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한동대학교는 AI에 대한 무모한 추종이 아닌, NIE교육(전인적 지능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전인적 세계시민워크가 동반 성장과 더불어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협력 없이는  
어느 나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전인적 세계시민워크의 하이라이트인

World Wisdom Forum은 매년 우리 시대의 현인(賢人)을 모시고 지혜와 통찰을 전해 듣는 자리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는 '기후변화 대응의 선구자'인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이 연사로 나서 '변화의 시대를 위한 지혜: 위기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했던 순간들에 대한 소회를 나누며 큰 화제를 모았다. 강연을 듣기 위해 모여든 참가자들로 행사장이 가득 찼고, 대담이 이루어지는 60분 내내 경청하는 열기가 뜨거웠다.

대담 사회: 한정연

채널A 기자

반기문 총장은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위와 같은 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그는 세계 193개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함께 협력해 온 역사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문제들을 조망하며 "국제협력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인류 공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대로, 유엔이 걸어온 길은 곧 국제협력의 역사다. 1945년 창설 이래 유엔은 80년 가까이 국제 평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는 유엔의 역사를 "193개 회원국이 함께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무대"라고 설명하고, 그간 유엔은 인권, 평화, 기후변화, 여성 권한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느리지만 꾸준한 진전을 이루어냈다는 점을 역설하며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나는 글로벌 시민입니다(I am a Global Citizen)"

반기문 총장은 "세계시민이란 단순히 한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국경과 이념을 넘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모든 인류가 함께 존중받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강연이 글로벌 비전과 세계시민 의식을 널리 확산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반기문 총장의 리더십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두드러진 평가를 받는 만큼, 기후변화 문제는 강연의 핵심 주제 중 하나였다. 그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구의 미래를 위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1.5도 제한 목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이 주도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감소는 아직 미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각국이 균형 잡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와 환경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을 찾는 글로벌 협력의 과제를 반영하는 발언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및 기술 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재난에 대비해 각국이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대규모 재난을 대비하는 종합 시스템,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와 탄력성 구축 등이 결국 인류 생존의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 여성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대담 중 반기문 총장은 글로벌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 주체로 함께 자리 매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건이며, 여성의 교육과 고용 기회 확대에 국제사회가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그는 유엔사무총장 재직 시절 유엔 여성기구 설립과 유엔 내 여성 고위직 확대 등 많은 진전을 이루어 낸 바 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Asia Initiative 재단은 Ban Ki-Moon Award for Women's Empowerment (반기문 여성 권리 증진상)을 제정, 2017년 이래 여성 권한 강화에 기여한 이를 선정하여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

**“**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처럼, 서로 서로를 지탱하는 존재이죠.  
이렇듯 인간은 상호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살 수 있습니다. **”**

## 정치 이념과 국제 질서: 평화와 정의를 위한 협력

대담에서는 세계 정치 상황과 이념의 갈등 문제도 다뤄졌다. 반기문 총장은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다니는 동료 선원처럼 이념과 갈등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이념이 국제협력을 방해할 수 없도록,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미래를 위한 메시지: 공존과 지속가능성

기후변화와 글로벌 위기에 처한 인류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기문 총장은 “우리는 지금이 순간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처럼 서로를 지탱하는 존재”라고 답했다. 인간은 상호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의식 (global citizenship)”임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 변화의 시대를 위한 지혜: 위기에서 기회로

### 대담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은 청년들에게 조언을 요청한 사회자의 질문에 반기문 총장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되, 국경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비전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자질로 “비전(vision), 열정(passion), 온정(compassion)”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는 세계시민이다(I am a global citizen)”라는 인식을 갖고 지구적 안목 (global vision)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며, 한동대학교가 글로벌 표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강연을 마무리한 후에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반기문 총장의 친필 사인 저서를 선물하는 듯 깊은 시간도 있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참가들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시간” 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긴 안목에서 공존과 협력의 해법을 제시하며 좀 더 나은 미래와 지속 가능한 내일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

**“**비전(vision) · 열정(passion) · 온정(compassion)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나갑시다 **”**



# Global Leader's Dialogue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Global Leader's Dialogue  
변화를 이끄는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Cities Driving Change :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a Sustainable Future

“대학과 기업, 도시와 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꿈꾸다”

“변화를 이끄는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Global Leader's Dialogue 세션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 위베르 베로슈 Urban AI 대표, 료 야마자키 Studio-L 대표, 김문규 NIBC 공동대표 등 4인이 연사로 나서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테크, 커뮤니티, 시정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 도시와 시민의 역할, 도시 거버넌스의 변화와 기술 혁신, 그리고 커뮤니티 혁신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변화를 이끄는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정 경험과 도시 혁신 노력,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포항의 사례를 공유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포항시의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포항이 산업도시에서 ‘글로벌 혁신 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이 혁신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투명성, 지역 산업과 미래 기술의 연계, 친환경 정책 로드맵을 차근차근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CO2 배출량 88% 감축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며 마무리했다.

위베르 베로슈 Urban AI 대표는 도시와 인공지능(AI)의 통합이 가져올 미래상을 설명했다. 그는 “Urban AI란 도시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도시의 구조와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AI가 단순히 디지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인프라, 건축, 환경 등 실제 도시 요소와 결합하여 도시 자체가 ‘지능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또한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도시 시스템 내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AI orchestrating (조율) 역할까지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AI는 도시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함으로써 이를 통해 안전한 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건강한 거버넌스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료 야마자키 Studio-L 대표는 일본 현지 경험을 통해 커뮤니티 디자인과 시민 자치의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커뮤니티 프로젝트 운영 경험을 통해 시민이 주도 하는 자생적 네트워크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여러 차례의 경험을 소개했다.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민 커뮤니티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시하는 등 다양하고 실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김문규 NIBC 공동대표는 포항을 세계적 혁신도시로 만드는 ‘포항 글로벌 기업 혁신 파크’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도시 혁신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 조망하고, 도시 개발이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도시가 상생하며 지역 사회와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혁신적 도시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특히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 인재 양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은 필수적이므로 “지역 대학과 동반 성장하고,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미래 혁신 도시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대학·기업·국제 기구가 협력하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 지방 도시재생의 새로운 레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녹색생태 도시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참가자들의 공감을 받았다.

## UNAI ASPIRE Korea : Green Campus Campaign

버려진 컵의 두번째 이야기, Zero Waste Green Future



## 세계시민의 미식, 포항 음식문화 스토리



### 참여업체

#### HISBEANS(히즈빈스)

모든 장애인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

#### 주효실의 양금스토리

포항쌀로 정성껏 빚어낸 한식 디저트

#### 카피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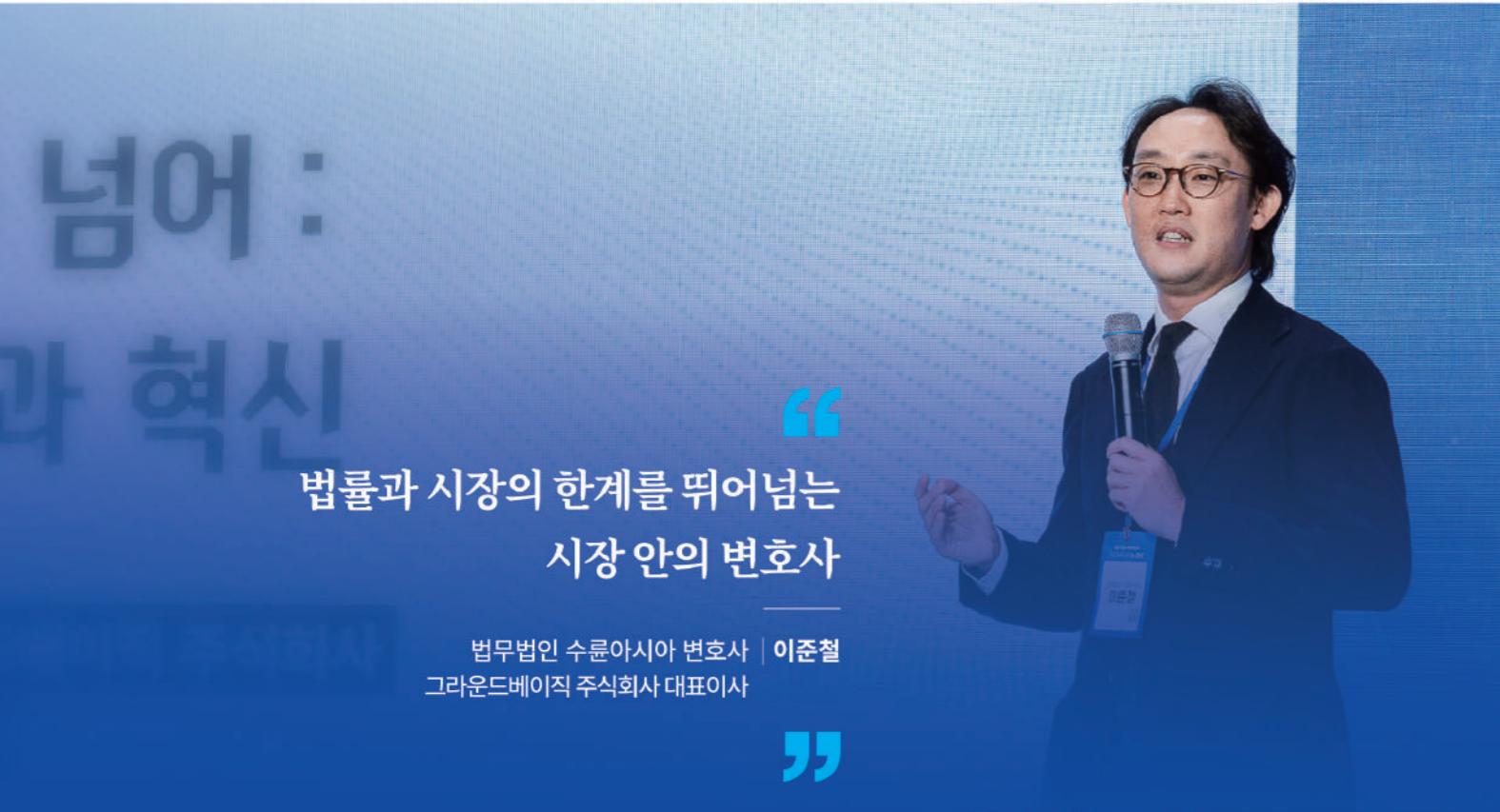
포항의 제철 신선한 맛과 행복을 담은 고소한 디저트

#### Honey Works(허니웍스)

직접 약봉한 꿀로 만든 자연의 달콤한 경험

## ESG 전인적 세계시민 STARTUP Talk

## ESG 전인적 세계시민 NGO Talk



변호사이자 스타트업 대표인 이준철 변호사는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의 한계에 부딪히는 다양한 사례를 직접 경험해왔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나 거대한 시장 유통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신용 거래 문제들을 접하며, “법대로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개발해 온 주역이다.

개별 소송만으로는 풀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창업자로서 그는 미수금 관리 서비스 “뒷배”와 소액채권 회수 솔루션 “리바운드”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데이터 기반 거래 안전망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상환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가락시장의 데이터화 및 AI 활용,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히며 법률 서비스의 확장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강조하고자 한 핵심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정직과 성실, 책임감이 중심이 되는 회복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희망이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직과 성실”이라던 김영길 총장님의 말씀이 여전히 자신의 좌우명임을 밝히며 참가자들의 박수 속에 강연을 마무리했다.



김승환 대표는 동아프리카 난민촌 물·위생·보건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은 국제 비영리 경영 전문가로서, 현재 아시아 전역의 비영리 단체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글로벌 파트너십,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장기적 실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그는 핵심 키워드로 “파트너십 (partnership)”, “존엄성(dignity)”, “장기성(long term)”을 제시하며 이것이 글로벌 공동체와 시민의식을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고 설명했다.

개발 또는 원조 사업으로도 불리는 글로벌 사회 공헌의 출발점은 AID, 즉 돋는 행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무조건적인 나눔이 아니라 상황과 시기에 맞는 균형과 분별, 그리고 경청(listening)을 통한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존엄성(dignity)”을 맞춤형 글로벌 협력의 근간으로 꼽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에도 사회복지 현장 경험과 국제 개발 협력 현장의 어려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문제, 개도국의 자립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풍부한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전문가의 깊은 통찰과 의견을 참가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감사를 표하며 박수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 제1회 김영길 전인적 세계시민상 시상식



<김영길 전인적 세계시민상>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신 고(故) 김영길 박사의 교육 철학을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 상은 연구·교육·실천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세계시민의식을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치하하기 위해 올해 첫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을 맡은 유종근 UNAI Korea 이사장은 “이 상은 세계시민의식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연구자와 전문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격년제로 시상할 예정이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부탁한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올해는 우수논문 분야, 교사 분야, 의료선교 분야 등 3개 분야 5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수상자



**논문상**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이수연 교수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서덕수 교수

**교사상** 한동글로벌학교  
안예은 교사

캄보디아 큰숲기독교국제학교  
조경희 교무주임

**의료선교상** NIBCM 국제선교회  
김승훈 선교사

##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ISTORY



2021 1회

### “전인적 세계시민교육: 지향점과 실행방향”

전인적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구체화하며, 세계 곳곳의 교육 현장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2022 2회

### “전인적 세계시민의식과 ESG의 가치”

전인적 세계시민의식과 ESG의 가치를 연결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학계, 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2023 3회

### “전인적 세계시민교육, 현재에서 미래로!”

전인적 세계시민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로 이어갈 비전과 구체적 로드맵을 함께 그렸다.



2024 4회

### “위기의 미래 우리는 세계시민입니까?”

1,800여 명이 참여해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논의하며, 전인적 세계시민의 추구 해야 할 가치와 책임을 모색하는 지혜의 장을 열었다.



2025 5회

### “변화로 시작되는 혁신, 함께 그리는 미래”

위기의 흐름 속에서 변화·혁신·협력의 가치를 논의하고,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김영길 전인적 세계시민상> 시상식을 통해 고(故) 김영길 박사의 교육 철학을 기리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인적 세계시민 무브먼트의 실행방향을 탐구하였다.



문화



기사입력  
2025.09.19 11:05

## UNAI Korea,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개최



▲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의 기조연설

세계시민교육의 증진과 성장을 선도하는 유엔 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UN Academic Impact Korea, 이사장 유종근)는 지난 16일 한동대학교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과 김영길 GRACE 스쿨에서 '변화로 시작되는 혁신, 함께 그리는 미래'를 주제로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를 개최했다. 올해 5회를 맞은 전인적 세계시민워크는 전인적 세계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현안 중심의 논의를 넘어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

(World Wisdom Forum)과 토론, 강연, 워크숍,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UN 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 반기문 글로벌교육원(IGE), 김영길 GRACE 스쿨, 한동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고려아연과 영원무역이 후원했다.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인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10주년을 맞았지만 1.5도 제한 목표는 이미 훈들리고 있으며,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혁신이 절실히다. 개인의 생활 습관 변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종근 UN 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 이사장은 비전 메시지를 통해 "전인적 세계시민 교육은 지식의 축적을 넘어 올바른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세우는 토대가 되어야 하며, 개인의 실천이 모여 전 세계로 확산되는 무브먼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김영길 전인적 세계시민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이 상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고(故) 김영길 박사의 교육 철학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구·교육·실천의 현장에서 세계시민 의식을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온 인물들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는 뜻을 담았다. 첫 수상자는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이수연 교수,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서덕수 교수(논문상), 한동글로벌학교 안예은 교사, 캄보디아 큰숲기독교국제학교 조경희 교무주임(교사상), NIBCM 국제선교회 김승훈 선교사(의료선교상)가 선정됐다. 시상은 앞으로 격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World Wisdom Forum에서는 '변화의 시대를 위한 지혜: 위기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반기문 총장과의 심도 있는 대담이 이어졌다. 그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공유하며,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다. Global Leader's Dialogue에서는 '변화를 이끄는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속 가능한 녹색생태도시로의 대전환'을 발표하며 포항시의 녹색도시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Urban AI의 위베르 베로슈(Hubert Beroche)는 '도시 AI 혁신을 향한 항해(Navigate the Urban AI Revolution)', Studio-L의 료 야마자키(Ryo Yamazaki)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No Community, No Life)', NIBC Korea의 김문규 대표는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쳤다. 이번 세션은 AI를 통해 확장되는 도시의 미래와 공동체 주도의 지속 가능성 관점을 더하며, 포항에서 추진 중인 기업혁신파크를 중심으로 도시의 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ESG 전인적 세계시민 Talk에서는 스타트업과 NGO 분야에서 전인적 세계시민의 가치가 어떻게 기업의 혁신과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과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UNAI Korea 관계자는 "오늘 전인적 세계시민워크에서 나눈 대화와 지혜가 각자의 삶 속 작은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모여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전인적 세계시민 무브먼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시사



기사입력  
2025.09.19 13:30

## 유엔 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개최



유엔 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UNAI Korea)는 지난 16일 한동대학교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과 김영길 GRACE 스쿨에서 '변화로 시작되는 혁신, 함께 그리는 미래'를 주제로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5회를 맞은 전인적 세계시민워크는 전인적 세계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현안 중심의 논의를 넘어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과 토론, 강연, 워크숍,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유엔 아카데mic임팩트 한국협의회, 반기문 글로벌교육원(IGE), 김영길 GRACE 스쿨, 한동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고려아연과 영원무역이 후원했다.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인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10주년을 맞았지만 1.5도 제한 목표는 이미 훈들리고 있으며,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혁신이 절실히다. 개인의 생활 습관 변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종근 유엔 아카데mic임팩트 한국협의회 이사장은 비전 메시지를 통해 "전인적 세계시민 교육은 지식의 축적을 넘어 올바른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세우는 토대가 되어야 하며, 개인의 실천이 모여 전 세계로 확산되는 무브먼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김영길 전인적 세계시민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첫 수상자는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이수연 교수,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서덕수 교수(논문상), 한동글로벌학교 안예은 교사, 캄보디아 큰숲기독교국제학교 조경희 교무주임(교사상), NIBCM 국제선교회 김승훈 선교사(의료선교상)가 선정됐다. 시상은 앞으로 격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World Wisdom Forum에서는 '변화의 시대를 위한 지혜: 위기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반기문 총장과의 심도 있는 대담이 이어졌다. 그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공유하며,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다. Global Leader's Dialogue에서는 '변화를 이끄는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속 가능한 녹색생태도시로의 대전환'을 발표하며 포항시의 녹색도시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Urban AI의 위베르 베로슈(Hubert Beroche)는 '도시 AI 혁신을 향한 항해(Navigate the Urban AI Revolution)', Studio-L의 료 야마자키(Ryo Yamazaki)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No Community, No Life)', NIBC Korea의 김문규 대표는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쳤다. 이번 세션은 AI를 통해 확장되는 도시의 미래와 공동체 주도의 지속 가능성 관점을 더하며, 포항에서 추진 중인 기업혁신파크를 중심으로 도시의 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ESG 전인적 세계시민 Talk에서는 스타트업과 NGO 분야에서 전인적 세계시민의 가치가 어떻게 기업의 혁신과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과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UNAI Korea 관계자는 "오늘 전인적 세계시민워크에서 나눈 대화와 지혜가 각자의 삶 속 작은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모여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전인적 세계시민 무브먼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 언론보도

NO	언론사	기사제목
1	동아일보	UNAI Korea,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개최
2	국민일보	유엔 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개최
3	파이낸셜뉴스	UNAI Korea,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실시…기후위기·지속가능성 논의
4	이투데이	"변화로 시작되는 혁신, 함께 그리는 미래" UNAI Korea,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실시
5	헤럴드경제	UNAI Korea, '변화로 시작되는 혁신, 함께 그리는 미래' 주제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개최
6	뉴스핌	'UNAI Korea',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개최
7	이투뉴스	UNAI Korea,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개최
8	FETV	"더나은 미래향한 전인적 세계시민 무브먼트 되길" UNAI Korea,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실시
9	내외경제TV	유엔 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개최
10	더퍼스트	유엔 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개최
11	비욘드포스트	UNAI Korea,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개최
12	시민일보	UNAI Korea,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성료… "글로벌 시민 의식 확산의 장 마련"
13	아시아에이	유엔 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성료
14	아시아타임즈	유엔 아카데mic임팩트 한국협의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휴먼 인 창조' 개최
15	디스커버리뉴스	UNAI Korea,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성료
16	CBC뉴스	UNAI Korea,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개최
17	아이티비즈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서 세계시민의식 확산 시동
18	데일리시큐	UNAI Korea, 'H.U.M.A.N. in 창조' 통해 전인적 세계시민운동 본격화
19	피앤피뉴스	UNAI Korea, 전인적 세계시민의식 주제로 제5회 H.U.M.A.N. 개최
20	글로벌에픽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창조적 세계시민교육의 장으로 열려
21	이넷뉴스	세계시민의식 실천의 장, 제5회 H.U.M.A.N. in 창조 개막
22	시선뉴스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개최… 'H.U.M.A.N. in 창조'로 글로벌 연대 강조

# 도움 주신 분들

## 고려아연

## 영원무역

## 한동대학교 재학생

강지혜	박한비
김나경	손예진
김수아	오채연
김연우	윤재원
김은수	이아형
김정훈	이주은
김초하	이지수
김태빈	임다비
류다인	정도웅
명유민	정서린
박승윤	정희원
박시은	조로이
박아림	최이안
박정수	하세은
박하임	



제5회 전인적 세계시민워크  
**HUMAN in 창조 2025**